

#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난항

### 210억 매입안 시의회서 부결 시민단체 감정평가 방식 의문 시내버스회사와 재협상 촉구



시내버스 회사 태원이 운영하는 목포시내버스.

목포시내버스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사업 포기  
로 비상경영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목포시의 '시내  
버스 노선권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시민정서와 맞지 않은 노선권 인  
수에 제동을 건데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원점 재검토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로가 예  
상되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  
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은 운송사업자가 포기한 노선권 인수를  
감정평가 평균금액인 210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목포시는 일방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 소송  
분쟁과 운행중단, 비상수송에 따른 비용과 시민불  
편 등을 감안해 노선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  
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권 수단인 만큼 목포  
시의회와 협조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예산  
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를 두고 반발도 만  
만치 않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반대가 강하다"면서 목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한데 이어 재협상을 통

한 새로운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은 "노선권 인수를  
제외한 고용보장 등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도 "시내버스가 멈춰서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이 참  
여하는 협상단을 다양화하고, 소통을 통해 시민정  
서에 맞는 안을 다시 만들어 올릴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도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 다시 제출  
해야 한다"면서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 측과  
엄정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는 시내  
버스 노선권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권을 인수하는 데 210억원의 시  
민들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목포시의 버스행정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노선권 협상을  
시내버스 회사 측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원점에서 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7월 정상화와 2월 중순 노선  
개편 등 예정된 일정이 이번 동의안 부결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 요구사항들  
이 최대한 반영된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  
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영암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영암매력한우 35%로 1위

지난해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에서 가장 인기있  
는 답례품은 '영암매력한우'로 나타났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에서 가  
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은 영암매력한우로 전체 매  
출액 3억3759만원 중 35%에 해당하는 1억1651  
만원을 기록했다.

영암매력한우는 2002년 상표등록, 2004년 브  
랜드육 출하를 시작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2020년과 2023년 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매실을 딱여 키워 최고 품질의 육질과 감칠맛을  
보유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산물 브랜드다.  
2위를 기록한 품목은 달마지쌀, 학이머뭉쌀 등  
영암쌀로, 전체 매출의 16%인 5516만원을 달성  
했다.

군 대표 공동 브랜드 달마지쌀은, 농림축산식품  
부가 주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의 전국 10  
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회 선정됐다. 2009~2011년 3년 연속 선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 '리브미' 마크를 획득한  
명품쌀이다.

매출액 3~5위를 달성한 품목은 제철과일, 기름  
잡곡, 김치 순이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최근 열린 2024년 영광군 건설공사 종합추진 기획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2024년 건설공사 조기 발  
주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영광군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 기획단 출범

영광군이 건설공사 종합추진 기획단을 출범하  
고 건설공사 조기 발주에 나섰다.

영광군은 군청 소회의실(본청 2층)에서 건설공  
사 종합추진 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본격적인 운  
영을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단은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분야  
별 10개 반, 본청 기술직 공무원 60명과 읍·면 13  
명 등 73명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총 480  
건(283억4500만원)의 건설공사에 대해 측량과  
설계,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 검토 등 2024년  
건설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  
는 3월 31일까지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해 추진

한다.  
또 올해 발주사업 중 군 분청 107건과 읍·면 44  
건 등 총 151건의 사업을 기술직 선·후배 공무원이  
탐을 이뤄 설계함으로써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기  
술습득과 정보공유는 물론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경 영광군 건설교통과장은 "건설기획단에  
서 내실 있는 설계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  
지하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신속한 예산집행으  
로 국가정책에도 부응해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  
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해남군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100만원

### 1월부터 1세 35만원→50만원

해남군이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  
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  
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 보육

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되며,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  
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  
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처음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  
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신청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  
도록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  
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난해 11월 정원해설사 양성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본재정원에서 교구 활용 수업을 받는 모습.

## 신안군 정원해설사 양성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신안군이 다음 달 2일까지 정원해설사 양성 교  
육 기초과정 3기(토요일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월17일부터 4월13일까지 매주 토  
요일 진행된다.

신안군은 1층 1정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해 정원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은 1004점  
정원과 수목 자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품격  
있는 정원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와 주민이 협업  
해 가정마다 향기 나는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

록 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대 섬 정원  
조성을 목표로, 14개 읍·면 30곳에 정원과 숲길을  
조성하고 있다.

정원해설사 교육은 읍면 사무소 농산팀을 찾아  
가면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  
서며, 사람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관한 관심이 정  
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광객들에게 품격 높  
은 정원해설로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만들어 가겠  
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진도군 전남지역 최초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

진도군이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달부터 난임 시술을 받는 진도군민이라면 하루  
최대 5만원, 10회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도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 난임 시술 의료기관  
을 찾으려면 왕복 4시간 이상 걸린다.

진도군은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제

도를 신설했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시  
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  
고 있는 진도군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영양보  
충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보배섬 임마  
모임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지원정  
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